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미래인재 키운다

- 특성화고 단계부터 현장 중심 교육으로 청년 건설기능인력 양성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는 특성화고 연계 훈련생들의 건설업 이해를 높이고 또래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 특성화고 또래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근 건설 현장은 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로 미래 인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환경에서도 건설 현장은 사람의 손끝 기술과 현장 경험,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전문 건설기능인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인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건설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특성화고 연계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청평고등학교와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학생 및 교강사, 한국건축시공기능장협회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경기 화성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이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래 간 교류를 통해 소속감과 협업 역량을 키우는 한편 안전의식과 현장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특성화고 연계 청년건설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현황과 훈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건설산업 동향과 직종별 트렌드 특강, 도면독해, 현장 에티켓 등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롯데건설 Safety On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통해 추락, 건설장비 관련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의식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별 실습 경험과 훈련 성과를 공유하는 또래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미래 건설기능인으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형성하며 향후 건설현장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 건설기능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 전문 기능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청년 기능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이 학생들이 건설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안전의식과 현장 실무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또래들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취업부	책임자	부 장	박수훈 (02-519-2121)
		담당자	대 리	성가진 (02-519-2123)